

광주시정 현안 “체육국에 물어봐”

U대회 경기장·신설 야구장 등 핵심시책 집중 국제대회 잇단 유치 ‘체육도시’ 변모하며 주목

광주시가 대규모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를 따라 ‘체육도시’로 변모하면서 체육U대회지원국(이하 체육국)이 핵심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등산 골프장 개발 분쟁, U대회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입찰, 신설 야구장 계약 논란, 롯데마트 광주월드컵경기장 재계약 문제 등 최근 일어난 굵직한 현안이 체육국으로 집중되면서 직원들은 주말·휴일은 물론 명절도 반납한 채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 매주 토·일요일 열리는 각종 체육행사의 진행·관리 등도 체육국의 몫인 탓에 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 기괴부서’로도 여겨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육을 전담하는 체육국을 신설했다. 당시 시정 내부에서는 생활 체육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체육국에 가장 먼저 찾아온 시련(?)은 어등산 관광단지내 골프장 특혜 논란이었다. 지난해 9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시민휴양시설을 만들겠다는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애초 목적과 달리 골프장만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체육국은 지역 주민과 골프장측,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골프장측이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또 오는 2015년 7월에 열리는 광주U대회 준비도 체육국의 핵심사업이다.

체육국은 대회 흥행을 위해 남북 단일팀 추진과 화정동 U대회 선수촌 건립, U대회 수영장·다목적체육관·양궁장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입찰에서부터 건축까지 전 과정을 맡고 있다. U대회 시설물 건축비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면서 각종 의혹이 시달리기도 했으나, 파격적인 입찰제도 개선으로 1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타 자치단체의 벤치

■광주시 체육U대회 지원국 주요사업

2012년 1월~현재	U대회 준비 및 남북단일팀 추진, 화정동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
2012년 7월~현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
4월 29~30일	실사단 광주 방문
7월 19일	스페인서 최종 결정
2012년 9월~12월	어등산 관광단지내 골프장 논란 수습
2012년 10월~현재	2군 추락한 광주FC, 1군 프로젝트 추진
2012년 1월~현재	U대회 수영장·다목적 체육관 등 입찰·건립
2013년 2월~현재	롯데마트 월드컵점 임대료 재협상
2013년 1월~4월	KIA와 신설 야구장 계약 재협상
매주 토·일요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 각종 체육행사 진행·관리

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체육국은 또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유치만 되면 경제 파급효과가 2조원에 이르고, 1만8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야말로 광주에 ‘대박’을 안겨줄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강한 경쟁상대였던 중국 등이 포기해 광주의 유치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오는 29~30일 실사단의 광주 방문이 유치의 성공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체육국 모든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실사단 방문기간에 맞춰 제85회 동아수영대회도 광주에서 열리게 돼 엄청난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수익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롯데마트 월드컵점 임대료와 KIA와 맺은 신설야구장 계약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시와 공동 야구대회 및 WBC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 안기서 체육국장은 “광주의 현안사업은 체육국에서 물어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들어 광주 방문이 유치의 성공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체육국 모든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실사단 방문기간에 맞춰 제85회 동아수영대회도 광주에서 열리게 돼 엄청난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표로 지난 2월부터 롯데마트 월드컵점 임대료와 KIA와 맺은 신설야구장 계약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시와 공동 야구대회 및 WBC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 안기서 체육국장은 “광주의 현안사업은 체육국에서 물어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들어 광주 방문이 유치의 성공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체육국 모든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실사단 방문기간에 맞춰 제85회 동아수영대회도 광주에서 열리게 돼 엄청난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U대회, 유치효과 극대화·사후활용 치밀히 준비해야

국제대회 치른 부산·대구, 시설유지에 年 수십억 부담 市, 대학부지 활용 예산절감... 세계수영대회 유치 연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가 아시아게임과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고도 이렇다할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부산시와 대구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설 사후활용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교수는 오는 25일 광주시의회의 연구모임인 ‘지방분권 및 재정건전성 모임’(대표 의원 김민중) 초청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아시아게임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종합경기의 경제적 효과와 홍보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U대회도 마찬가지”라

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산은 아시아게임을 치른 후 시설유지에만 매년 40억원을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사이클경기장에 194억원을 다시 투자해 금빛경륜장을 개장했다”며 “그러나 적자가 발생, 경륜사업에 600억원 가까이 쏟아 붓는 등 ‘아시아게임 흑자’ 55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대구시는 2001년 30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월드컵 때인 2002년 24만명으로 증가했다가 유니버시아드 개최 시점인 2003년엔 17만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U대회보다는 경제적 효과와 홍보 효과 면에서는 단일종목

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광주 U대회 경기장은 대학부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였으며, 사후 활용도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만큼 부산과 대구의 사례를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U대회 유치로 국제대회 유치 노하우를 쌓게 됐으며, 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치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민선 5기들어 세계 최초로 선수촌 아파트를 민간 재건축 아파트로 건립했으며, 신설 수영장은 세계수영대회 유치 시 100% 활용된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U대회 개최효과로 생산유발 2조원, 부가가치 1조원 등의 영역효과를 내놓기도 했으며, 자체수입만 12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성

신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에 김성(60·사진) 전 재단법인 의재문화재단 감사가 선임됐다.

광주시는 16일 사무처장에 응모한 23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2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김 전 감사를 사무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광주일보 부장, 무등일보 편집국장, 사회통합위원회 광주협의회 위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양산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1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강은태 광주시장과 임내현 국회의원, 송광문 북구청장 등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지상 3층 규모인 양산동주민센터(연 면적 944.57㎡)는 지난 2월 15일 완공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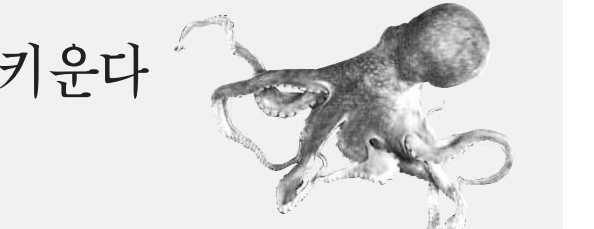
낙지, 갯벌에 목장 만들어 키운다

신안 장산도 2ha규모 조성... 2년 후 확대키로

“알 뱀 낙지 한 마리를 갯벌에 풀어 놓으면 2년 뒤 최대 1만 마리의 낙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전남도가 환경오염 등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줄고 있는 낙지를 갯벌에 풀어 수확하는 ‘낙지목장’을 조성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16일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앞 갯벌 2ha를 낙지목장으로 지정하고 낙지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낙지목장은 도해양수산과학원이 자연산 낙지를 잡아 들어 알을 배게 하는 양식에 성공하면서 가능해졌다. 낙지는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알을 낳게 해서 다 자란 낙지를 잡아들이는 게 이 목장의 시스템이다. 산란과 먹이 활동 등 모든 성장 과정이 자



연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활해 가을 수확철에 다시 잡아들이기도 수월하다.

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으로 낙지목장에 알 뱀 낙지 30마리를 풀어 놓을 예정이다. 낙지는 한 번에 100여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최대 1만 마리의 낙지가 서식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

과학원은 또 낙지목장 일대 갯벌을 일정한 기간 보호하기 위해 낙지자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낙지잡이를 금지하고, 낙지목장 2ha 중 1ha에만 알 뱀 낙지를 방류해 낙지를 풀어 놓지 않은 지역과의 낙지 생산량 등을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문화선당 예술감독 이달 말 재선임

8개월 전 사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예술감독이 이달 말 재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아문단)은 지난해 3월 선임된 벨기에 출신 프리 라이젠(62·여) 예술감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선임에 나섰다

라이젠 전 예술감독은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했다.

올해부터 한국에 상주하며 전담 개관 준비를 하기로 했지만, 건강문제의 일정이 맞지 않아 사임했고 후임 감독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문단의 관계자는 “공연 분야에서 명망 있고 실력 있는 인사를 뽑으려고 최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에서 예술감독이 공적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상 작년 말까지 라이젠 감독이 전당과 관련된 일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면 ‘도시공원’에서 계속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총 예산이 30조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정부차원에서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공원보상비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해결지도도 미약해 보인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45억여원을 들여 겨우 82필지, 0.024581km²를 매입·보상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가 직접 조성·관리하는 ‘국가공원’ 조성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다 국토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공원 조성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지방채 발행, 민자유치 활성화, 비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교환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하거나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모독 독활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이마트, 서방사거리, 교육점주소 06,19,83,180,184, 4,19정류소 55,98,151,518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러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62)952-5577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라지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 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기침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